

화보 뉴스



▲동두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10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이달농악, 태권도시범, 퍼레이드(이달비행로)로 개회식, 각 종목별 동별 경기를 실시하여 종합우승에 불현동, 공동준우승 생연2동, 보산동이 차지하여 시민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동두천시 탐동동 217-2번지에서 음식점 옛날집을 운영하는 조병용씨(50)는 지난 16일 오전 12시 불현동 관내 독거노인 및 노인어른 120여명을 음식점으로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이날 조병용씨는 맥과 과일, 음료수 등 노인분들을 위한 잔치상을 마련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국지도 56호선 4구간 개통

은현면 용암리~상수리 6.38km구간

자유로 분발 인터체인지~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국도3호선(경화로)을 연결하는 국지도 56호선의 4구간(은현면 용암리~상수리 6.38km)이 왕복 4차선으로 개통했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2001년 6월 착공한 4구간의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마무리짓고 개통했다고 밝혔다. 제2청은 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착공한 1구간(파주시 교하읍~조리읍 10.29km)을 내년말 완

공하고 2구간(조리읍~법원읍 13.00km)과 3구간(법원읍~상수리 11.70km)을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제2청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쯤 3구간 확장 및 포장 공사에 착공하고 내년말 2구간 공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국지도 56호선은 국도 39호선(고양~의정부)에 이어 경기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두번째 도로로 경기 북부지역 교

통 소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주·양주시 구간은 반미바람의 도화선이 됐던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고 등 빈번한 군 장비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2개 구간이 개통되는 내년말이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연천군민 1천200여명 철원서 시위

폐기물처리장 설치 이전 및 철회 요구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설치 장소를 놓고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천군 주민 1천200여명은 지난 15일 철원군청앞에서 3시간여동안 '폐기물처리장 설치 이전 및 철회'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1시경 철원군청에 도착한 연천주민들은 군청앞 주차장에서 차분하게 집회를 가졌으나 오후2시경 문경현 철원군수권한대행이 연천주민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업지이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여명 떨어진 군청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전경 4개중대 병력 40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군청유리창에 제란과 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천주민들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으나 별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천주민들은 철원군으로부터 '철원·연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약속받고 오후 4시경 집회를 마치고 귀가했다.

홍영표 연천군대책위원장은 "연천군과 1.5km 떨어진 철원읍 울리리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되

면 청정하천인 차탄천의 수질오염과 연천군의 상징인 고대산 관광이미지가 훼손,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생계위협이 예상돼 집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문경현 군수권한대행은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사업지가 소규모 시설로 고대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차탄천 오염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합법적인 것은 물론 주변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천군수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연천 백학면 등 3개면 285만㎡ 군사시설 보호 구역 완화

연천군 백학면, 미산면, 장남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 구역 285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연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비룡부대는 백학면 두일리와 노곡리, 미산면 아미리, 장남면 원당리, 자작리 일대 72만㎡에 대한 고도 제한을 6m에서 9~11m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백학면 두일리,노곡리,학곡리,구미리와 미산면 아미리, 장남면 원당리,자작리 지역 213만㎡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5.5~11m로 지정, 신규 행정위임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단층 밖에 건립할 수 없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조치로 2~3층까지 신, 증축이 가능하며, 신규 행정 위임

된 곳은 고도 제한 높이 이하 건물에 한해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완화 지역 도면은 군청 기획감사실과 해당 면사무소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연천군 캐릭터 관광상품화한다

'고룡이 미룡이' 리뉴얼제작



연천군은 캐릭터인 '고룡이·미룡이'를 리뉴얼(renewal)과 다양한 응용형으로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작에 착수했다. 캐릭터 리뉴얼 사업은 3차원 입체 컷플 기본형 2종, 응용형 16종, 상품화 매뉴얼 28종을 선정 관광 상품으로 개발 21세기 벤처산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캐릭터 '고룡이'는 고대·석

기·고인돌 등을 상징하는 '고'를, '미룡이'는 미래지향적인 희망과 발전 등을 상징하는 '미'를 의미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석기 문화 유적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게임 및 만화산업에 투자, 관광문화상품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미군 한국인 근로자 41명 해고 통보

최대 8천명 해고 전망...생계대책 요구



주한미군 감축과 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감축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하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역과 전국 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비 용역원과 노조, 비노조원을 포함해 1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해고 사태는 한미 당국간 주한미군 감축·이전 협상이 구체화될수록 가속화할 전망이다. 총과업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군은 한미연합사 소속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내 클럽 한국인 근로자 8명에 대해 다음달 14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고하겠다고 통보했고 동두천 지역 클럽 종사자 33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식당 종사자와 노무단(KSC) 등 120여명의 근무지 이전 등에 대해 미군 측과 논의 중이며 미군도 미2사단내 (한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를 조사중이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미군 1만2천500명이 감축될 경우 전체 한국인 근로자 1만8천여명(노조원 1만3천여명) 가운데 5천~8천여명이 단계적으로 해고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검증지방산업단지내 잔여부지 재분양

8필지, 평당 94만6천원 섬유염색 업종 대상

양주시는 검증지방산업단지내 잔여부지 8필지를 재분양한다. 섬유염색의 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회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지역경제과 투자지원 (820-2416)이나 양주검증염색조합(864-7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당 분양가는 94만6천원이며 분야대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분양대금 납부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분양면적은 8필지로 300평 2필지와 700평 1필지,400평 2필지, 639평 1필지,900평 1필지,600평 1필지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24일 양주문화예술회관 오후7시30분

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4일 오후7시30분 양주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지난해 시승격과 더불어 더욱 성숙해진 양주시립합창단은 아름다운 선율로 시민의 무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주회는 제1부에서 기도 등 외

곡곡 5곡과 가는 길 등 외국곡 4곡, 제2부에서는 떠나가는 배 등 가요 6곡과 천지창조 중 3곡을 연주한다.

공연문의는 양주시 문화체육담당관실(전화:820-2102-5)로 하면 된다.

이수의기자 les5682@hanmail.net

HD, PE원단생산·쇼핑백·비닐인쇄가공전문·각종 공업용포장자재 총판

'대일비니루총판'



- 비니루
- 락카
- 이형제
- 실리콘
- 면장갑
- 빈코팅장갑
- 완전코팅장갑
- 고무장갑
- PVC장갑
- 램
- 장화
- 화장화
- 보루
- 작업복
- 보호테이프
- 각종테이프
- 각종끈
- 수동밴드
- 자동밴드
- 마대
- 마스크

PP,PE,하이덴/ 농·공업용 필름생산/인쇄/가공/공업용 포장자재 일절

대방아파트 S오일
←의정부 포천→
대일비니루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4-1
전화 : 031)544-3627 // 팩스 : 031)544-3627
휴대폰 : 011-9070-3627 // 대표 : 김 영 재